

일레인 필립스 박사, 구약문학, 강의 29,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아, 유다 왕들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그럼, 모두들 복된 부활의 날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업이 3주 남았다거나 그런 건가요? 조금 무섭고 조금 무섭습니다.

이 발표의 추가 내용이 다소 산만하다고 생각되면 항상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작은 소우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Like는 필러가 아니고 like는 심표가 아니며 like는 따옴표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쨌든, 그것은 내 취미용 말이나 연단 등 오늘의 것이면 무엇이든 됩니다. 테드, 그래도 좀 너무 큰가요? 울림이 있어서 좀 충격적이네요. 하나 아래로? 응.

가끔씩 나는 연단 상자에 올라가서 비슷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일한 발표이므로 몇 가지 발표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공지사항처럼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쯤이면 여러분 대부분이 서류를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종이를 첨부 파일로 돌려받았으나 어떤 이유로 풍선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있는데 읽을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제 댓글을 꼭 읽어주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건강을 위해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나는 당신이 어떤 합창단인지 압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귀한 구원자,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가 부활절, 부활의 날을 함께 기념하였으니,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관한 진리를 기억하고 간직하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활.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참으로 변화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없애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위치에 계속 집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담대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께 어떤 이유로든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한지 일주일이지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분열왕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일을 신속하게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서와 우리가 이미 지혜문학 측면에서 연구한 자료로

들어가려면 역사를 상당히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면 와서 역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역사 지리학을 선택하세요.

특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사용할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상황이 개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개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왕국이 931년에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할 날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북쪽 왕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일을 시작하니라. 르호보암은 다윗 왕조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명심하세요.

지난번에 우리는 북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 전체를 헤쳐 나갔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시작했는데, 그 때 우리는 중단하고 이 모든 계획을 바로 여기에서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싶은 날짜는 722년, 북쪽 왕국 아시리아의 멸망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많은 날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 가지 날짜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587-586년에 남부가 바빌론, 특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 파란색 상자 전체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울 것입니까? 글쎄, 하이라이트만 찍을게 , 알았지? 가장 중요한 왕에 관한 하이라이트만 표시되며, 다음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표시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의 동맹 전체를 잠시 중단한 여호사밧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곳의 선지자 미가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인 여호람 아하시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빠르게 수행한 다음 우리의 주요 인물인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특히 요시아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면 저를 멈춰주세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J 또는 A로 시작하는 것 같고 이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직 플래시 카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플래시 카드가 스스로 구성하거나 조금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구성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썄요, 우선 국제정치에 관해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성경의 유사점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다시 자료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한동안 현장에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주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구약성경과 병행하여 읽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산헤립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나에게 예루살렘이 있었다거나 실제로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앗수르는 히스기야와 유다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들이 북쪽 왕국 전체를 포로로 잡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등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현장에 바빌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바벨론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는 약간의 실수였습니다. 이사야는 잠시 후에 그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 즉 바빌로니아는 남쪽 왕국이 멸망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말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므로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약성서의 유사점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기스를 발굴할 때 발견된 많은 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기스 편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픈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에게서 타오르는 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도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의 구절을 읽을 때 남아 있는 두 개의 요새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조금 더 종합해보면 이 작고 작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집트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항상 남쪽과 서쪽으로 내려오는 흥미로운 세력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똑똑해져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다음 바빌론과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연구할 때 보게 될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의 유사점을 생각하고 싶다면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런 종류의 이상한 동맹을 살펴보고

현대 정치에서 다른 누군가와 헤어지고 형성되고 개혁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빠른 일이지만 다시 구약성서의 평행선으로 돌아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도도 잠깐 살펴보세요.

우리는 아시리아의 확장을 볼 때 이와 동일한 기본 지리적 영역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국을 완전히 갖게 될 때쯤에는 그것이 여기 이집트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일부 내용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 정말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포로기 이후 기간에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있듯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일을 해보자.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남쪽을 따라잡아야 하며, 여호사밧을 따르는 남쪽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를 통해 우리의 빠른 경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웃시야가 다음 주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몇 명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레이더 화면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는 예후, 즉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외딴 길르앗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운전하다가 이스라엘을 향해 오르렁거리며 돌아오고, 거기 이르면 북왕과 남왕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픽업하는 곳입니다. 아하시야는 남방 왕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제거하고, 북쪽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아마도 너무 깨끗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완전히 청소할 때 암살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입니다. 종류의 것들.

아하시야가 암살되어 현장을 떠났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입니다. 그렇죠? 그녀가 여기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남부 왕조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므리는 북쪽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므리, 그 뒤를 잇는 아합, 바알 숭배를 향해 두 팔 벌려요, 그렇죠? 예후가 오므리의 손자 아합의 아들을 멸절시켰을 때 그는 북쪽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달라가 남쪽 계통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여자.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그녀가 남부 왕조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줄 사이를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북쪽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바알 숭배가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남쪽에서도 바알 숭배를 주요 숭배 대상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숙청을 통해 그녀는 7년간의 공포 통치를 통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간호사에 의해 숨겨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아스라는 작은 남자.

조아쉬, 훌륭해요. 응, 조아쉬라는 작은 남자야. 그는 아달라의 정화를 피하고 그의 유모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7년 동안 숨겨졌다가 그들이 그를 끌어냅니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아달라는 목이 잘립니다. 그녀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조와 야훼 숭배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요아스는 한동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야다는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거의 배교하게 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귀족 등 의 조언에 굴복하여 기본적으로 바알 숭배와 아세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갑니다. 바알은 남자입니다. 아세라는 수입된 페니키아 숭배의 이 추악한 부분에서 여성 배우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가 굴복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후, 그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여 스가랴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여기서 긴장과 복수와 보복이 쌓이고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요아스 자신도 암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아마샤도 암살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남부 왕국이 정말로 슬프고 비극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크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

그런데 먼저 아사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를 아마 웃시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행 이름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사랴서를 읽어보면 웃시야서와 똑같습니다.

나는 그를 웃시야라고 부르겠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왕이에요.

역대하에는 그에 대해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유다의 국경을 다시 확장합니다. 전쟁기계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흠을 사랑하고, 밖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재다능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교만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바로 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결과로 그를 문둥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저것.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은둔 생활을 해야 하며, 그와 그의 아들 요담은 그의 통치 마지막 해 동안 공동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의 통치 시기는 웃시야의 통치 시기와 겹친다. 요담도 좋은 왕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가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옵니다. 우리는 아하스에 대해 조금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대선지자 중 한 사람인 이사야와 함께 할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몇 가지 정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다를 생각해보면, 여기 우리의 작은 유다가 바로 여기,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훨씬 더 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그것을 전멸시켰지만, 아하스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리아. 좋은.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유다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초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들은 모두 시리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중요한 네 가지 주요 엔터티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가득 차기도 전에 북왕국과 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는 처음부터 작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 왕국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는 역시 강력합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 왕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글썄, 쉬운 유혹이었던 그는 당대의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집어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킹스(Kings)에서 그것을 읽을 예정입니다.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생활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완충지대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제단의 도면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설계대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마쳤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로 다가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하즈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종교적 동화 문제입니다. 그는 여호와와 제단보다 더 매력적인,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을 보고 그 권리를 성전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비열한 일입니다. 아하스는 또한 성전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그의 감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맹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주에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7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예언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 왕국과 시리아 사이의 동맹에 직면하여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예언이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앓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잘못된 호소의 맥락에서. 그러므로 이사야가 아하스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7장에서 그 예언을 살펴보고 정치적 맥락에서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한 것을 잊지 않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 속담을 기억하는 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이를 낳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오른쪽. 저는 여러분에게 그 랍비의 속담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연구를 위해 이것을 붙잡아 두십시오. 계속하자.

우리는 히스기야 밑에서 픽업하여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하스 이후 당신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문을 따르면 나는 역대하를 선택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는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와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길 모퉁이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을 건축하여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또한 아하스가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킨 왕들 중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통치 원년 첫째 달에 그가 여호와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여 들여왔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라 하였느니라 이제 저는 열왕기하 18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에서는 그가 놯뱌를 꺼냈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봅시다: 놯뱌는 무엇이었으며,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사라, 어서 가세요.

네, 흥미롭게도 그들은 광야를 방황한 이후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민수기 21장을 기억하신다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서 모세가 모세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 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대 위에 뱀을 세우라 그리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으나 낫으리라.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방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아마도 기원전 1400년쯤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원전 700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물건은 종교적인 유물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변했을 수도 있으므로 히스기야가 할 일은 그것을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담이지만, 히스기야가 이 일을 산산조각 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뱀은 이집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이집트의 성전 맥락에서도 이집트에 관한 어떤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물건을 갖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해당 옵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모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9장에서 성전 정화에 관해 길고 긴 토론을 벌입니다. 그가 유월절도 기념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30장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다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썼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두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5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포고문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나요? 막연히.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응, 남쪽이지?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요. 사해 끝에서 서쪽으로 직진하면 바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자를 보냅니다. 댄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지역의 북쪽 끝까지. 어찌되었든 왕의 명령에 따라 행자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앗수르 왕의 손에서 도망하여 남은 자니라

괜찮은?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 목이 뻣뻣해지지 마십시오.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고 그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북쪽에 있는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의 일부 사람들은 그들에게 쌓인 조롱에 맞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마음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크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두 번째 달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라에 있어요. 그는 단지 무작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이 허용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라? 예, 그들이 깨끗하지 않았거나 여행을 했다면 말이죠. 그것은 또한 민수기 9장의 규정 중 하나였습니다. 음, 여기에서 여러분은 아마 장거리 여행을 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저는 30장 18절의 절반쯤 지났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서는 비록 성소의 규례에 따라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글쎄요, 동시에, 여러분은 구약의 병행 내용을 읽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스기야는 후츠파(chutzpah)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츠파가 뭐예요? 훌륭한 이디시어 단어입니다. 윌슨 박사의 현대 유대인 문화를 들으면서 후츠파에 대해 조금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후츠파(chutzpah)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유대인 동네에서 자랐다면 알 겁니다. 어서, 첼시 .

검션인가요? 적극성. 응, 그건 우리 할머니도 사용하셨을 단어야. Gumption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 일부.

괜찮은. 그것은 일종의 뻔뻔한 오만함인데, 아마도 뻔뻔함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션을 좋아해요.

좋은 말이죠? 하지만 chutzpah는 뻔뻔한 오만함이 그것을 번역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대담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해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고 어린 유다가 앗수르 왕에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을 생각해보면 이는 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은 우리에게 연도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산헤립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의 끝 부분과 32장의 시작 부분 사이의 연결점을 읽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1장의 끝입니다.

방금 모든 부흥과 개혁 등을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행한 일이 이것이니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과 의와 신실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성심으로 일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기를 바라겠지만, 3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한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도시들을 포위하고 정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수업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신실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많이 공격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옳은 일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것입니다. 그는 가서 선지자 이사야와 대화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구원이 아니며, 물론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글쎄, 어쨌든, 우리의 편리한 지도에서 산헤립의 침공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 말을 믿으십시오. 흰 타원은 라기스이다.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를 지속적으로 지리학 수업으로 데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침략은 북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도달하지 않으면 해안 평야를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해안 평야 지역을 기억하시나요? 쉬운 여행, 평지, 군사 침략 및 상업 교통은 항상 해안 평야의 이러한 주요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산헤립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여기 고속도로를 따라 해안 평원을 내려와 라기스에 주차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침략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관문이고 계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라기스에 있을 때 그는 바로 여기까지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휘관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이 시점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산헤립은 실제로 돌아가서 이 일을 자랑할 것입니다.

산헤립 감옥은 그가 말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약성서와 평행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곳은 내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히스기야의 끝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것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군대가 라기스 지역을 습격하는 폭풍에 대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대영 박물관에 가시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대영 박물관에는 특별히 촬영된 이 자료를 전시하는 방이 있습니다. 산헤립의 궁전에 있는 방의 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 전체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처음 7개 행의 크기 정도일 것입니다.

방 주위에는 산헤립의 궁전 벽에서 떼어낸 부조가 있는데, 이는 라기스의 습격을 보여줍니다. 여기 위쪽에 방어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방어자들, 이스라엘 방어자들, 죄송합니다. 저기에는 공성 사다리가 올라가고, 여기 아래에는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쪼개지는 사람들과 온갖 종류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라기스에서 고고학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할 시간이 없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도 발견한 아시리아 포위 경사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산헤립의 시도이다. 다음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예술가의 재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헤립이 다시 라기스 사람로부터 가져온 모든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기스 사람들은 이동 가능한 보좌에 앉은 산헤립에게 끌려갔고 모두가 복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포위된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을 바로잡는 방법에 관해 자신의 우선순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먼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시대의 핵심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이는 이사야가 말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산헤립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

시온의 처녀 딸이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도망가는 동안 딸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일부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자원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주님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른 일도 했습니다. 괜찮은? 그는 자신의 도시를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우리의 작은 도시 다윗을 기억하신다면, 잠시 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 도시의 물의 근원은 기혼샘이라는 샘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양쪽에 거대한 탑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외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북쪽에서 내려와 정착한 피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 서쪽 경사면에 또 다른 성벽을 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주요 사업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작은 터널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모든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연못과 터널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와 이사야의 사역,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그의 기술 측면에서 그의 백성을 부양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 몇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약성경의 평행구절을 읽을 때 나는 구약성경의 평행구절로 계속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암 비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에서 발견된 놀라운 비문입니다. 이것은 기반암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반암을 통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3분의 1마일 길이의 기반암을 통과하며, 쪼개지고 어떻게든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비문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어쨌든 아시리아 군대는 처리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여호와와 사자 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5,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보니 거기에는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 산헤립은 진영을 깨고 철수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왔는데, 흥미롭게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왕국의 끔찍하고 잔인한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삽화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암살합니다.

산헤립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글썄, 나는 이미 여기에서 히스기야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충실한 생활 방식.

그가 가능한 모든 방법에서 모든 자원을 매우 신중하게 활용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성경 인물을 선택하면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방 뒤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다윗 성의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혼샘이 바로 거기에 있다 .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터널이 여기서 시작되어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 거기서 끝나지만 이쪽 끝에서 쪼개지고 쪼개지면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길이가 3분의 1마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엔지니어들은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이다.

아마도 그들은 석회암에 일종의 자연적인 균열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벽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수영장처럼 물을 줄곧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분명히 샘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아마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수영장 안으로 물을 가져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이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다윗의 작은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여기 이 전체 구역을 둘러싸는 성벽을 쌓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시리아가 그곳에서 하고 있던 일을 근거로 볼 때 북쪽 왕국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북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상당히 보호되지 않은 서쪽 언덕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 주위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모으는 기술을 생각하는 대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살았고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물 공급원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계곡으로 내려가서 저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물이 있으면 계곡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는 현재 증가하는 예루살렘 인구가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플 사진. 두 가지.

여기 그의 벽이 있습니다. 벽 중 하나죠.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지적한 서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성벽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은 그가 에워싸인 부분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의 크기를 늘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저기 위에. 그건 그렇고, 이 벽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바닥에 있는 모든 잔해로부터 이 점을 알아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 이 벽의 두께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22장에서는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 이사야 22장 9-11절에서 이사야는 “너희가 성을 쌓으려고 집을 헐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것에 관한 다른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서 단수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복수형입니다. “집을 헐었어요.” 분명히 여기 아래에 집 기초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토지수용권의 전체 전망과 같았고 그들은 이 토목 공사 방어 시설을 짓기 위해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몸을 굽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키가 꽤 큰데, 분명히 취한 뒤, 미안해요, 중간에서 만난 후에 물이 여기 샘에서 저기 수영장까지 흘러가도록 바닥을 균일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 따라서 경사도를 낮추면 터널 끝 부분에 도달할 때 어떤 곳에서는 높이가 12~16피트에 이릅니다. 1800년대에 이 터널이 발견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손전등을 들고 통과합니다. 그때 겪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 집에는 꽤 빨리 꺼지는 양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미사로 가득 차 있었고 물이 너무 높아 어떤 곳에서는 1인칭 설명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곳의 천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다음 공기 주머니를 기다리느라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수심이 낮아서 물이 내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작은 판자 작업에도 돌진하고 있습니다 .

매혹적인 이야기. 그들에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히스기야의 변호입니다.

괜찮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응, 미안해.

계속하세요. 도시 내에 수자원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요점인가요? 응, 그게 요점이야. 수원인 기혼샘은 기원전 2천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중기부터 샘물을 지키는 두 개의 거대한 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백한 물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그것을 가져와서 도시 전체로 전달하여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것을 얻을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고고학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앞선 일련의 채널과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것은 분명히 히스기야로부터 나온 것이며 도시 내부에 있는 또 다른 웅덩이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뭐, 뭐든 가져가세요.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세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할 것입니다.

괜찮은. 어쨌든 히스기야 다음에는 므낫세가 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거나 많은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사야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15년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수학을 합친 적이 있나요? 므낫세는 지난 15년 동안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는 12세였습니다.

므낫세는 흉측한 왕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므낫세는 수많은 무죄한 피를 흘렸으며 불행하게도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제가 열왕기하 21장에 잠시 나와 상황 이 얼마나 끔찍한 침체를 겪었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8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의 5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3절, 산당을 재건하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별들의 군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법 점술을 연습했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보다 앞서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16절은 아마도 최악의 구절일 것이다. 므낫세는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곳에서 저 곳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정경 본문에서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사야가 므낫세 치하에서 순교당했다고 묘사하는 정경 외 문헌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마도 신약에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읽는 이사야의 순교라는 본문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므낫세의 기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회해서 우리의 충실한 사람들 목록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지, 그렇지? 우리는 재판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을 언급한 후 32절 끝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약속한 것을 얻은 자, 사자의 입을 막은 자, 곧 다니엘, 불꽃의 진노를 멸하는 자, 칼날을 피한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 곧 엘리야 곧 엘리사니라.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석방되지 않았으며(36절),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둘로 잘렸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유대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오랫동안 예언을 했으나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가 끝나기 전에 살다가 므낫세 치하의 공포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바와 같이, 영적 쇠퇴는 매우 심각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며 추악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이 시점에서 역대로 돌아갈 예정이므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아시리아 왕은 아시리아가 항상 무서운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군대 지휘관들과 앗수르 왕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게 하시며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물리시고 낫 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었다면, 그것이 단지 성경적인 내용 이상이라는 인상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감동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니라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아침에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다면 잠시만 일어나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기 내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과 모두가 신은 결코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은 그에게 너무 비통한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말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는 명심해야 할 우리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를 흘려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채웠는지 열왕기하의 본문에 따르면, 그분은 당신과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불쾌한 일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시 잠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며,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주의 깊게 읽었다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4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그렇게하기를 원한다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장 4절을 보면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므낫세와 그 모든 죄로 인해 유다 사람들을 그 앞에서 제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일이 유다에게 일어났느니라 무죄한 피를 흘린 일도 행하였느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가득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좋아요, 당신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므낫세를 용서하셨지만, 성약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좋아, 언약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항상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의 므낫세의 악입니다.

여기서는 계속 충전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할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요시아.

이 분열된 왕국 시대를 생각해보면 두 명의 주요 개혁자는 한편으로는 히스기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시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월절을

축하할 것입니다. 왜? 왜 유월절은 개혁되고, 회개하고, 소생하는 백성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구출? 구원? 큰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이집트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셨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요시아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킹스에 남을 것이다. 22장.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여덟 살이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그의 통치 18년차에 수학을 하면 그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꽤 인상적이네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성전에 가져오는 돈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곳을 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토라의 책인 22장 8절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라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매력적인. 그것을 발견한 제사장은 힐기야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Huldah라는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계속 읽어보자. 제사장 힐기야(22:14)가 여선지자 홀다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제2지역에 살면서 그를 위해 이것을 통역해 줍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토라의 책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글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가 하던 일들을 하게 하고 성전이 예전처럼 오염되고 불경스러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할 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고 그것을 해석하려면 여선지자 홀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홀다에 대해 한마디만 할게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이 시점에서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살아 있는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니다.

주변에 다른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홀다에게 가져갔고 그녀는 토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에 대한 저주와 축복을 읽어 보세요. 글썄요, 어쨌든 요시야는 이 언약의 중요성에 너무 압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언약을 갱신할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하여 성전에 있던 모든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습니다(지금 23:4). 그리고 그는 성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지역도 청소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요시야는 유다 성읍들과 산당들을 더럽힌 모든 제사장들을 게바에서 브엘세바로 데려왔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 중 하나는 제가 항상 지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리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을 브엘세바에게 말하기 전에, 기억하시나요? 한 20분 전쯤? 그때는 북왕국이 아직 거기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게바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최대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산당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는 벤 힌놈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혔는데 그곳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제사하고 아이들을 몰렉에게 불에 넘겨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5절에는 벤엘에 있는 제단 곧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을 그가 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6절, 요시야가 둘러보다가 산비탈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뼈들을 제단 위에 불살랐더라. 제가 그 구절을 다 읽기 전에 이것에 대해 뭔가 기억하시나요? 왕국이 분열되고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억을 새롭게 해드립니다.

퀴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단서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험이
금요일부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낱자인 것 같아.

왕국이 분열되자마자 느밋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거짓 송배를 세웁니다.
그거 기억나? 제단에서 그는 자신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7월 축제가 아닌 8월 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배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하라고 지시받은 내용을 별로 진실 없이 패러디한 것입니다.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베엘에
올라와서 베엘에 대하여 선포한다.

기억하시나요? 제단이며, 다윗의 집에 속한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네
위에서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읽었습니다. 아니면 11장이었습니까, 아니면 13
장이었습니까? 나는 내 챕터를 결코 기억하지 못합니다. 13시인 것 같아요
.

어쨌든 그건 삭제하셔도 됩니다, 테드. 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검토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약 300년이 지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고 있고, 열왕기는 이 전체 과정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과 땅을 정화하고, 베델에서 이루어진
예언을 성취하며, 내가 말한 대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구속과 회복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축하하며, 유월절의 심오한 영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시아는 유월절을 기념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그렇게
기념된 유월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오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장 25절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명기처럼 들리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시아는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파라오 느고의 손에 죽고,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있게 됩니다.

앞서 읽어드린 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요시아 다음으로 매우 빠른 하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불순종해 왔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바벨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침략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597년. 여호야킨이라는 사람이 잠시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꼭두각시 왕들을 세우는 중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유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집트에 의해, 그다음에는 바빌론에 의해 인형극을 설정했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할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은 여러분을 보내겠습니다. 역대하 끝에서 이 마지막 왕들은 모두 한 장, 즉 36장, 역대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땅이 안식을 누렸다고 합니다. 36장 21절,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려 70년을 마칠 때까지 안식년을 누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였음이라. 다음 주. 이제 그만할 시간이다.

선지자의 개념, 예언, 예언주의,